

제 목: 한국은행 인천본부,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자금 추가 확대

□ 한국은행 인천본부(본부장 김현정)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내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의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의 한도를 2,700억원 증액하여 총 5,400억원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음

○ 우리본부는 지난 3.9일부터 2,700억원 한도로 지원자금을 운용하기 시작한 데 이어 3.19일부터는 대상업종 및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*

* (지원대상 업종 확대)

도소매업, 음식·숙박업, 여행업, 여가업 및 운수업, 對중국 수출(또는 수입) 실적이 있는 제조업 → 서비스업, 제조업(수출입 여부 불문), 농림어업, 건설업

(취약부문 지원비율 상향)

자영업자 및 저신용(6~10등급 및 SOHO)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50% → 100%

□ 그동안 우리본부가 실시한 자금지원은 피해업체의 자금 가용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나타남

○ 대상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3~4월중 4,600억원 규모로 이루어지고(지원자금 소진율 100%) 평균 대출금리도 낮게 운용(3월중 가중평균 기준 2.78%)

<붙임: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확대 안내 >

문의처 : 한국은행 인천본부 이지선 과장, 김보석 조사역

Tel : 032-880-0054, 0062 Fax : 032-880-0119 E-mail : bokibcr@bok.or.kr

“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>지역본부>인천본부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(붙임)

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확대 안내

1. 지원규모: 5,400억원

- 지난 3.9일 1차로 2,700억원이 지원된 데 이어 이번에 2,700억원이 증액되어 지원한도는 총 5,400억원

2. 지원 대상

- 서비스업, 제조업(수출입 여부 불문), 농림어업, 건설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
 -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·보험(64~66), 공공행정·국방(84), 국제 및 외국기관(99), 유흥주점(56211, 56212), 무도장 운영(91291)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)은 제외

3. 지원비율 및 업체당 한도

-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의 50%를 지원하고, 업체당 지원한도는 수혜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
 -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(신용등급 6~10등급)에 대한 대출실적은 100% 지원

4. 지원기간

- 2020.5.18 ~ 9.30일(대출 취급일 기준)

5. 대출금리 및 시행일

- 당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.25%
- 시행일: 2020.5.18일(대출 취급일 기준)